

## 다문화텍스트의 교양교육에의 활용방안

차성연\* · 윤송아\*

### 차 례

- |                             |                               |
|-----------------------------|-------------------------------|
| 1. 서론                       | 2) 통치전략으로서의 다문화주의와 감정의 정치학    |
| 2. 다문화텍스트를 활용한 교양교육의 방향성    | 3) 세계시민으로서의 보편성, '상상'적 공감과 실천 |
| 3. 다문화텍스트를 활용한 대학 교양 수업의 실제 | 4. 결론                         |
| 1) 자기 감정에 대한 확인 및 성찰        |                               |

### 국문초록

본고는 지금까지의 다문화 교육이 타자에 대한 위계화된 시선을 내면화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인식의 문제가 다문화 교육 분야에서 좀 더 조심스럽게 다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음을 제기하고자 한다. 다문화 교육이 궁극적으로 다양한 타자가 서로를 이해 존중하며 모두가 동등한 시민의 자격으로 함께 더불어 살아갈 공동체를 형성해나가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암암리에 자신을 주류로 인식하면서 타자를 하위계층으로 대상화하는 시선을 내면화한 여러 교육 프로그램 및 정책에 대한 비

\* 경희대학교 강사

판은 반드시 제기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대학의 교양교육에서 이 문제가 깊이 있게 다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대학 교양교육의 방향에 대해 고심어린 논의가 오고 가는 시점에서 그 방향을 모색하는 한 방법이기도 하다는 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에 본고는 다양한 다문화텍스트를 활용하여 교양교육의 지향점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았다. 교양교육으로서의 다문화교육은 ‘다양성’에 대한 수용에 그쳐서는 안 되고 타자에 대한 윤리교육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먼저 ‘타자에 대한 자기 감정의 확인 및 성찰’을 진행하고, ‘연민’이나 ‘혐오’와 같은 개인 감정이 사회적 차원에서 어떻게 정치적 의미를 획득하게 되는지를 분석하는 활동들을 진행하도록 하였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서사 텍스트를 활용하여 타자에 대해 ‘상상’적으로 공감하면서 동등한 ‘세계시민’으로서의 윤리를 함양할 수 있는 데에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시도해보았다. 이 과정들은 단계적 순서에 의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글쓰기>나 <독서 토론>, <작품 읽기>, <시민 교육> 등 다양한 교양교육 과정에 유동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본고에서 제시한 활용 방안은 개인 감정의 사회적 의미, 감정의 정치학 및 실천의 영역을 포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지, 정의, 행위의 측면을 아우르는 융합적 교양교육의 모델이 될 수 있으며, 세계시민으로서의 윤리적 태도에 대한 교육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다문화교육 및 교양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주제어 : 교양교육, 다문화교육, 자기성찰, 감정의 정치학, 세계시민, 서사적 상상력

## 1. 서론

이제 한국을 단일민족사회라 말하는 사람은 없다. 다양한 사회·경제·문화적 지표들이 한국사회가 다문화사회에 진입했음을 말해주고 있다.<sup>1)</sup> 1993년 외국인 산업연수제도가 도입되면서 외국 노동 인력이 서서히 유입되기 시작했고 2000년대에는 국제결혼으로 인한 결혼이주민, 다문화가정 자녀 또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였다. 직장이나 학교와 같은 공적 영역에서뿐만 아니라 가족 등의 사적 영역에서도 이러한 ‘다문화’ 현상이 한국인의 삶의 실상을 바꾸어놓게 되면서 이제 다문화는 거스를 수 없는 사회적 흐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편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외국인 범죄의 증가 등 여러 부작용을 낳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다문화정책에 대한 반대 여론 또한 심각한 상황이고<sup>2)</sup>, 오랫동안 한민족 중심으로 형성되어온 문화적 통념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이에 따라 다문화 사회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정책 및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논의들도 활발하다. 양적으로만 보면 2000년대 이후 발표된 다문화 관련 연구는 엄청난 수준이다.<sup>3)</sup> 그러나 연구의 관점은 대부분 결

1) 2015년 2월 26일자 『연합뉴스』보도에 의하면, 국내 체류 외국인 수가 1월말 기준 177만 4천 603명으로 2014년보다 13.2%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결혼이주민 수는 지난 1월 현재 15만 798명이고 이중 여성이 84.9%를 차지했다. 국적별로는 조선족을 포함한 중국 40.1%, 베트남 26.3%, 일본 8.4%, 필리핀 7.3%, 캄보디아 3.0%였다. 특히 2013년 7월 난민법 시행 이후 난민신청자가 급증해 2014년 말까지 3천959명이 난민 신청을 했으며 현재 2천 139명이 심사 대기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2) 2008년 설립된 ‘다문화정책반대 카페’가 1만명 이상의 회원을 확보하고 있고, 최근에는(2015년 1월 19일) 『동아일보』등 주요일간지에 ‘반다문화’ 전면광고를 게재하기도 했다.

3)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제공 학술연구정보서비스(www.riiss.kr)에서 ‘다문화’를 검색어로 입력하면 무려 4811건의 학위논문과 8336건의 국내 학술지논문 목록이 제시된다.(2015년 3월 22일 기준) 이중 ‘다문화교육’ 관련 논문은 학위논문 3501건,

혼이주민, 이주 노동자, 탈북자 등을 이방인으로 타자화하면서 이들을 한국 사회에 어떻게 통합시킬 것인가를 문제 삼고 있다. 실제로 다문화 교육이라 하면 외국인의 한국어 교육, 한국 사회 적응 훈련 정도로 인식되고 있으며, 한국 정주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으로는 다양한 문화 체험을 통한 차이를 인식(혹은 인정)하는 정도를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앞으로 더욱 심화될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고 ‘통합’을 모색하기는 역부족일 것이다. 그 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모두를 위한 ‘통합’이 아니라 선택된 대상만의 통합이라는 ‘배제’의 시선이 작용하고 있다. ‘교육’이라는 제도적 틀 내에 수용되는 외국인이주민의 범위에는 불법체류자 등 배제되는 대상이 있기 마련이고, 대부분의 다문화 정책 및 교육은 이러한 폭력적 배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외국인이주민을 위계화하고 선별하는 시선이 내재되어 있다. 한국 정주민 대상 프로그램 또한 외국인이주민을 다양성의 한 범주로 인정하기를 권장할 뿐, 한 공동체 내의 구성원, 함께 살아가야 할 이웃이자 동료로서의 타자에 대한 인식 및 윤리적 태도에 대해 고민하는 교육은 찾아보기 힘들다.

본고는 이러한 다문화 교육이 타자에 대한 위계화된 시선을 내면화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인식의 문제가 다문화 교육 분야에서 좀 더 조심스럽게 다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음을 제기하고자 한다. 다문화 교

---

국내학술지논문 4294건이다. 이 연구들의 경향을 몇 마디로 아우르기는 힘들지만 대체로 “서구의 논의와 정책을 설명하면서 우리 사회의 다문화교육이 나아갈 방향이나 과제를 제시”하는 연구 경향을 보인다.(류방란, 「다문화교육 정책 논의와 교육 현실의 성찰」, 『다문화교육연구』Vol.6 No.4, 한국다문화교육학회, 2013, 131~149쪽) 최근 ‘비판적 반성’의 관점이 제기되고는 있지만 현직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에 한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임민정, 「비판적 반성 중심의 다문화 교사교육을 통한 유아교사의 관점 변화」, 『어린이문학교육연구』15권3호, 한국어린이문학교육학회, 2014, 273-296쪽) 또한 시민교육 분야에서 ‘세계시민’과 ‘타자성’ 개념을 고려하여 다문화교육의 방향에 대해 제고하는 논문들이 제출되고 있다.(참고문헌 목록 참고) 본고는 자기성찰 및 실천의 영역을 포괄한 구체적 수업 운영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성을 지닌다.

육이 궁극적으로 다양한 타자가 서로를 이해 존중하며 모두가 동등한 시민의 자격으로 함께 더불어 살아갈 공동체를 형성해나가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암암리에 자신을 주류로 인식하면서 타자를 하위계층으로 대상화하는 시선을 내면화한 여러 교육 프로그램 및 정책에 대한 비판은 반드시 제기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대학의 교양교육에서 이 문제가 깊이 있게 다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대학 교양교육의 방향에 대해 고심어린 논의가 오고 가는 시점에서<sup>4)</sup> 그 방향을 모색하는 한 방법이기도 하다는 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전문화된 전공교육에 치중하거나 실용적 직업교육에 집중하는 것만으로는 현재의 한국대학이 수행해야할 사회적 역할을 다했다고 말할 수 없는 시점이다. 고등학교 졸업자의 81%가 대학에 진학하는 현실에서(2010년 기준 통계청 발표자료)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시민으로서의 소양에 대한 교육은 이제 대학의 교양교육이 담당해야할 지당한 몫이 되었고, 이는 현 사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공동의 가치를 탐색하고 이를 학문적으로 뒷받침하는 대학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기도 하다. ‘다문화’는 한국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현실이자, 현재의 대응에 따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도래할 수 있는 미래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 ‘다문화’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타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이며<sup>5)</sup>, 바로 ‘우리’의 미래를 위해 학문적·실천적으로 탐색해야

4) 교양교육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2006년 10월 ‘한국교양교육학회’가 창립되었고, 경희대학교는 2011년 교양교육을 일신하고자 교양학부를 ‘후마니타스칼리지’로 개편하면서 ‘후마니타스 교양교육연구소’를 개설하였다. 이 연구소에서는 최근 『후마니타스 포럼』 창간호를 발간하였다.

5) 수전 손택은 『타인의 고통』(이재원 역, 이후, 2004)에서 “당면의 문제가 타인의 고통에 눈을 돌리는 것이라면, 더 이상 ‘우리’라는 말을 당연시해서는 안 된다”며 (p.23) ‘우리’라는 용어 사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 ‘우리’라고 말해지는 순간, ‘우리’와 ‘우리 아닌 것’ 사이의 경계가 확고해지며 ‘우리’ 안에 포함된 것들에 폐쇄적 동질성이 부여되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민감하게 의식하면서 외국인이주민을 포함한 ‘우리’라는 용어를 조심스럽게 사용하고자 한다. 이 부분에서는 배타적 ‘우리’로서의 의미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당면 현안’이라는 맥

할 공동의 의제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의 교양교육에서 다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대학 교양교육의 정체성 및 사회적 역할의 수행이라는 측면에서도 필요한 일이다. 본고는 다문화텍스트를 활용하는 실제 교안을 제시함으로써, 점차 글로벌화되어 가는 사회 속에서 ‘세계시민’으로서 살아가기 위한 윤리적 태도의 함양을 대학 교양교육의 가치이자 한 방향으로 재확인하고자 한다. 이미 많은 대학에서 교양교육의 이러한 방향성에 대해 동의하면서 그에 합당한 교과 교육을 실시하고는 있지만 구체적인 교안의 개발은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한국 사회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다문화’는 중요한 현안이자 학문적 주제이다. ‘다문화’는 일상에서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문제이면서 다양한 텍스트를 통해 ‘선전/교육’되고 있는 이데올로기적 담론이며, 또한 학계에서도 이주 및 탈경계 담론, 관용 담론과 더불어 핵심 테마로 연구되고 있어 대학의 교양교육에서 현실과 이론을 접목시켜 접근하기에도 적합한(따라서 필수적인) 주제이다.

이에 본고는 사진 및 광고, 영화와 문학 작품 등 다양한 텍스트<sup>6)</sup>를 통해 학생들에게 내면화되어 있던 타자에 대한 인식을 성찰함으로써 타자 인식의 문제가 자기 성찰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음을 인지하는 활동, 한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서 타자와 더불어 모색해야 할 공동의 가치에 대한 토론 및 실천 활동 등 대학 교양교육의 현장에서 다문화텍스트를 활용할 수 있는 수업 운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는 또한 대학 교양교육 및 다문화 교육의 방향을 모색하는 작업과도 연결되어 있다.

략으로 사용하고 있다.

6) 본고에서 사용하는 ‘다문화텍스트’의 의미는 이주노동자 및 결혼이주민 등 외국 인이주민의 문제를 초점화하여 다루고 있는 텍스트를 말한다. 문학 및 문화 영역에서 ‘다문화’는 현실적 의제로서 이미 많은 텍스트를 통해 다루어져왔고 이를 교육과정에 활용할 것을 제안하는 연구들도 제출되어왔다.(주로 유·초·중등 교육에 집중되어 있고, 대학교육에 활용한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또 텍스트활용은 문학텍스트에 집중되어 있는 편이다.) 본고는 이를 대학의 교양교육 과정에 활용하는 구체적 교안을 제시하는 데 집중하고자 한다.

## 2. 다문화텍스트를 활용한 교양교육의 방향성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전세계적 ‘이주’가 일반화되었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해 전세계가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넘어 공통의 문화를 공유할 수 있게 되었고, 자본의 흐름 또한 국가의 경계를 넘어 초국적 금융자본을 형성하게 되면서 이에 따른 인구 이동이 복잡다단한 방향으로 빈번해지고 있는 양상이다. 한국 또한 예외는 아니어서 다양한 배경 속에서 국경을 넘어 이주해오는 ‘이방인’들과 마주하게 되었다.

다문화주의는 이러한 거스를 수 없는 흐름과 맞물려 형성된 학문적·정치적 담론이자, 더 범위를 좁혀 말하자면 국가적 차원의 정책, 혹은 통치술이라 할 수 있다. 다문화주의를 국가적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는 영국, 프랑스, 독일, 호주 등은 어떤 이유에서든 오래 전부터 이민자를 수용하는 데 적극적이었다. 반면 한국은 오랫동안 ‘단일민족’이라는 신화 속에서 자기폐쇄적이며 배타적인 성향을 유지해왔고 1990년대 이후의 갑작스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차분한 검토 없이 ‘다문화주의’를 수용하게 된 경우라 할 수 있다. 한국 정주민의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시선에 대한 성찰 없이 일방적으로 ‘교육/선전’된 다문화주의는 이미 그 출발부터 한계를 안고 있었다고 하겠다.

따라서 다문화교육의 출발은 ‘자기 감정에 대한 확인 및 성찰’이어야 한다고 본다. 다문화에 대한 이해의 척도는 ‘나’와 ‘다른 것’에 대해 얼마나 개방적이며 유연한가가 될 것인데, 이에 대한 점검이 보다 심층적인 자기분석 및 자신을 둘러싼 사회 역사적 배경에 대한 이해로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낯선 것, 이질적인 것에 대한 반응은(자기검열을 거치지 않은 즉각적 반응) 대개 그것이 집단적인 것이든 개인적인 것이든 무의식적 차원과 연관되어 있기 마련이다.<sup>7)</sup> 한국인의 내면에 깊이

7) 마사 누스바움 또한 “자유와 평등을 위한 정치 투쟁이란 그 무엇보다도 개인의 ‘내면 투쟁’이어야만 한다”는 마하트마 간디의 말을 인용하면서, 민주적 시민교육

자리잡고 있는 집단적 폐쇄성 및 배타성은 숭한 이민족의 침략에 시달려야 했던 역사와 관련되어 있으며 특히 일제강점기 이래로 내면화된 피해의식이나 열등의식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미국으로부터 원조를 받았던 나라라는 집단적 자기 인식은 이제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되었다는 허영적 자부심과 함께 그 대상 국가에 과거의 열등의식을 투사하게 되는 왜곡된 심리로 나타날 수 있다. 개인적 차원에서도 새로운 환경을 두려워하는 성향, 다양한 경험으로부터 차단되어 있었던 성장 배경 등이 작용하고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집단 기억 및 개인적 기억에 대한 분석은, 다문화에 대한 이해가 인식적 차원의 교육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님을 말해준다. 개인 감정에 대한 솔직한 직시와 날카로운 분석을 통해 ‘내’ 안에 낫설고 이질적인 것이 함께 거할 수 있도록 하는 지난한 과정인 것이다. 다문화가 표방하는 다양성 수용은, 다양한 색상이 어우러져 아름다운 풍경을 완성하는 조화로운 모자이크<sup>8)</sup> 이해되어서는 곤란하다. 그 안에는 낫설고 불편한 감정을 안고 어색하게 끼어 있는 자신이 있음을 인정해야 하고, 단지 ‘다양한 색상’ 중의 하나로 환원할 수 없는 무수한 차이가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 죽음을 무릅쓰고 국경을 넘어온 탈북자와, 외국인과의 연애와 결혼에 따른 이민자를 ‘다양성’이라는 표어 아래 동일 선상에 놓을 순 없는 것이다. 따라서 ‘자기 감정에 대한 확인 및 성찰’에는 이주민의 자기 분석 또한 포함된다. 까다로운 절차를 통과해, 때로는 불법을 감행하며 국경을 넘어온 과정과 그 배경, 낫설고 이질적인 환경 속에서 힘들었던 기억을 분석함으로써 이주민 또한 자기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딛고 분명한 자기 인식에 이를 수 있으며, 또 이러한 과정을 다룬 이주민 혹은 정주민과 나눔으로써 서로를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을 위해 개인의 내면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심리학적 분석이 필요하다고 본다. —마사 누스바움, 우석영 역, 『공부를 넘어 교육으로』, 궁리, 2011, 65-66쪽.

8) 이는 다문화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표상이다. “다양한 색상, 다문화가 함께 한다면 멋진 풍경을 그릴 수 있어요”라는 ‘다문화’ 관련 공익광고를 보아도 알 수 있다.

이러한 ‘자기 감정에 대한 확인 및 성찰’의 과정은 ‘나를 위한 글쓰기’를 비롯한 교양교육 글쓰기 수업에서 활용될 수 있다. 대학 글쓰기 수업의 중요한 테마 중 하나인 자기성찰적 글쓰기를 ‘다문화’라는 주제와 연결시킴으로써 ‘나’에 대한 글쓰기는 곧 ‘나’를 둘러싼 세계에 대한 글쓰기로 이어질 수 있다. 이질적인 것에 대한 자기 감정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기억을 발굴하며 분석하는 글쓰기는 ‘나’와 ‘나’를 둘러싼 집단의 기억이 별개의 것이 아님을, 현재의 감정이 과거의 기억과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게 한다. 이를 통해 자기성찰적 글쓰기의 한계로 흔히 지적되곤 하는 자기방어적·자기폐쇄적 글쓰기의 한계에서도 벗어날 수 있으며, 자기기술을 통한 사회역사적 배경의 탐색을 거쳐 다문화라는 현실을 대하는 개인적·심리적 장벽을 완화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통치술로서의 다문화주의, 즉 이데올로기적 담론으로서의 다문화주의에 대한 비판적 이해가 필요하다. 역사적으로 지배계급의 통치술은 항상 ‘우리’로의 포용정책과 ‘우리 아닌 것’에 대한 철저한 차별정책이었다. 이러한 통치술은 점차 ‘우리’의 범주를 확장시켜 다양한 다수를 법적 제도적으로 포섭하는 대신, 비가시적 배제와 차별의 영역을 넓히는 방식으로 변용되어 왔다. 투표권을 가지지 못했던 여성이 동등한 시민의 범주에 포함된다거나 흑인의 인권이 보장된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역사의 진보는 서서히 진행되어 왔지만 그 이면에는 더 교묘하고 은밀한 방식의 배제와 차별이 병행되어 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 한 국가의 법률 체계 또한 ‘국민’이라는 ‘우리’의 범주를 만들어 그 안에 포함될 수 있는 자에게만 권리와 의무를 부여한다. 국가 정책으로서의 다문화주의는 바로 이 ‘국민’의 경계에 들어설 수 있는 자에게만 ‘관용’을 베푸는, 그리하여 그 대가로 경계 이내에 있을 수 있는 자격요건을 정당하게 심문하고 경계 바깥으로 벗어나는 행위에 대해서는 폭력을 동원해서라도 합법적으로 통제할 수 있게 되는, 이중적 차별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웬

디 브라운은 개인적 윤리로서의 관용과 정치적 담론으로서의 관용을 구별하여 설명하는데, 그가 지적하는 정치적 담론으로서의 관용은 “사회적·정치적·종교적·문화적 규범들을 부과하는 행위이며, 관용의 대상이 되는 이들을 관용을 베푸는 이들에 비해 열등하고 주변적이며 비정상적인 이들로 표지하는 일인 동시에, 상대가 관용의 한계를 넘어섰다고 판단될 경우 부과할 수 있는 폭력 행위를 사전에 정당화하는 기제”인 것이다.<sup>9)</sup> 이러한 ‘관용’적 통치술이 작용하는 체제에서 ‘국민’이라는 경계 바깥에 놓인 존재는 실재하는 신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합법적 ‘생명’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벌거벗은 생명(호모 사케르)’이 된다.<sup>10)</sup>

‘다문화’와 관련된 공익광고들은 이러한 통치술로서의 다문화주의 담론을 잘 보여주는 텍스트이다. “다양한 색상, 다문화가 함께 한다면 멋진 풍경을 그릴 수 있어요”라는 식의 다양성 수용을 강조하는 ‘다문화’ 관련 공익광고들을 통해 정부 정책으로서의 다문화주의를 ‘선전/교육’하는 이데올로기적 측면을 고찰해 볼 수 있다. 특히 레인보우합창단(다문화가족 자녀들로 구성된 다문화합창단)이 ‘아리랑’을 노래하며 “더 큰 대한민국을 노래합니다”라는 문구를 보여주는 공익광고의 경우 정부의 ‘관용’적 이데올로기로서의 다문화주의를 잘 보여준다. 다양성에 대한 인정 및 수용을 기본 원칙으로 하면서도, 광고 속의 다문화합창단은 다양한 문화적 정체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아리랑’이라는 한국적 정체성 속에 통합되어 있는 모습을 보인다. 실제 공연 장면을 편집한 ‘재현’이라는 점에서 더욱, 공익광고가 선전/교육하고자 하는 정책적 지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통치술로서의 ‘다문화주의’를 이해하는 과정은 곧, ‘연민’이나 ‘혐오’와 같은 개인적 차원의 감정이 어떻게 정치적 이데올로기와 담합하여 통치 전략화할 수 있는지를 이해하고 분석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낯설고 이질적인 것에 대한 ‘혐오’는 개인적 감정을 넘어 ‘우리’와 타자의 경계를

9) 웬디 브라운, 이승철 옮김, 『관용: 다문화제국의 새로운 통치전략』, 갈무리, 2010, 37-38쪽.

10) 조르조 아감벤, 박진우 역, 『호모 사케르』, 새물결, 2008 참조.

명확하게 구분 짓는 정치적 행위이며 ‘우리’의 이익을 고수하기 위해 타자를 열등하고 주변적이며 이상한 것으로 규정짓는 폭력적 재현 행위이다.<sup>11)</sup> 특정 종교에 대한 혐오라든가 인종/민족 혐오주의 같은 양상들을 보면 ‘혐오’라는 감정이 어떻게 집단적으로 정치세력화될 수 있는지 알 수 있다. ‘혐오’의 정치세력화는 자기 집단의 옹호나 이익 챙기기를 넘어 타자에 대한 폭력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최근 한국 사회에서도 반다문화주의 담론이 형성되고 있는데, 이것이 이익집단의 갈등(이주 노동자가 정주민 노동자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는 논리)을 넘어 인종 혐오주의적 양상을 보이고 있는 점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혐오’가 부정적인 감정이라면 ‘연민’은 그에 비해 선한 감정으로 인식될 수 있지만 ‘연민’ 또한 타자와의 경계를 분명히 하면서 타자와의 대면을 가로막는 자기방어적 감정이라는 점에서 교묘하게 통치술과 담합할 수 있다. 수전 손택은 『타인의 고통』에서, 고통스런 죽음의 이미지, 잔인한 살육의 장면을 보며 흔히 느끼게 되는 ‘연민’이라는 감정에 대해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연민을 느끼는 한, 우리는 우리 자신이 그런 고통을 가져온 원인에 연루되어 있지는 않다고 느끼는 것”이라 말했다.<sup>12)</sup> 타인의 고통을 바라보며 그 고통이 나의 것은 아니라는 데에서 비롯되는 안도감, 나아가 나는 그 고통에 대해 그 무엇도 할 수 없으며 고통에 대한 책임에서 무고하다는 감정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고통받는 타자와 ‘나’ 사이의 경계는 확고해지며 ‘나’는 타자의 고통에 대해 개입할 수 없다는 체념, 혹은 자기합리화에 빠지게 된다. 이처럼 타자의 고통을 적나라하게 재현하는 텍스트(를 생산하고 그 유통을 묵인하는/부추기는 시스템)와 그것을 보며 ‘연민’을 느끼는 ‘우리’ 모두 타

11) 마사 누스바움은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지향하는 데 가장 위험한 두 가지 도덕적 감정으로 혐오감(disgust)과 수치심(shame)을 든다. —임옥희, 「서사적 상상력: 인문학적 페미니즘의 가능성」, 『탈경계인문학』13,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인문과학원, 2012, 17쪽.

12) 수전 손택, 앞의 책, p.154.

자의 고통을 딛고 선 이 시스템의 유지에 공모하고 있는 셈이다.

‘혐오’나 ‘연민’과 같은 감정의 영역이 정치적 행위와 은밀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데 대한 이해는, 자기 감정의 확인 및 이해가 개인적 차원이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도 필요한 일이라는 점을 일깨운다. 또한 감정에 대한 자기성찰적 분석을 통해 사회적 실천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형성될 수 있다. 여기서의 실천이란, 통치술로서의 다문화정책, 혹은 시스템에 의해 활용되는 다문화주의에 공모하지 않으면서 타자와 대면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인식틀을 마련하고, 포섭과 배제에 기반한 선택적 ‘우리-되기’를 강화하는 대신 ‘우리’의 범주를 끊임없이 탈영토화하는 일련의 작업들을 포함한다. 마사 누스바움의 ‘세계시민주의 교육’은 이러한 인식적·실천적 전환의 계기를 마련하는데 있어 의미 있는 시사점을 던져준다. 누스바움이 말하는 ‘세계시민론’은 ‘모든 인류를 우리의 동료 시민이자 이웃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주장한 스토아학파의 세계 시민(kosmou politês)주의 관념에 기초하고 있다.<sup>13)</sup> 이를 현재의 ‘다문화’적 현실에서 이해하면, 저마다 다른 문화와 역사에 기반한 ‘차이’를 넘어 동등한 ‘세계 시민’의 자격으로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의 ‘차이’에 대해 이해·공감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혐오’와 같은 나쁜 감정들을 절제할 수 있는 ‘세계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추기 위해 ‘서사적 상상력’을 통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는 점에서 교양교육적 관점에서의 다문화교육의 방향성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마사 누스바움은 미래 사회는 필연적으로 ‘혼성적 사회’가 될 수밖에

13) 마사 누스봄 외 지음, 오인영 옮김, 『나라를 사랑한다는 것-애국주의와 세계시민주의의 한계 논쟁』, 삼인, 2003, 32쪽. 디오게네스의 세계 시민(kosmou politês) 관념을 발전시켜 이성과 도덕적 가치를 존중하는 ‘인간적 주장과 포부의 공동체’를 주창했던 스토아학파는 ‘모든 인류를 우리의 동료 시민이자 이웃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세계 시민 교육을 제안한다. 스토아학파는 서로 다른 문화와 역사에 기반한 차이를 왕성하게 상상하는 것이 교육의 본질적 임무 중 하나이며, 차이 상상하기는 다시 그 차이를 보여주는 수많은 사실들에 정통할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한다.

없다고 보면서 “한층 더 혼성적인 세계의 구성원으로 인식할 수 있는 능력” 및 “그러한 세계에 살고 있는 다양한 집단들의 성격과 역사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sup>14)</sup> 세계시민주의 교육의 필요성과 의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첫째, 우리는 타자의 렌즈를 통해 우리 자신을 볼 때, 우리의 실천에서 지엽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을, 그리고 한결 더 넓게 혹은 깊게 공유하고 있는 바를 깨닫는다. 즉 자민족, 자국 중심적 보편성의 미망에서 벗어나 타 지역의 다양한 문화와 역사를 배우고 이해할 때 궁극적으로 자신에 관해 더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전지구적 계획과 지식 그리고 미래를 공유하고 있다는 인식 아래 우리는 국제적 협력이 필요한 문제를 해결해나가야 하며, 전지구적인 대화를 위해 세계의 다른 나라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을 쌓아야 한다. 셋째, 우리는 사고의 범주를 자신의 영역에 국한해서는 안 되며, 다른 사람들의 생활권과 자유 그리고 행복추구권을 매우 진지하게 고려하는, 세계의 다른 지역에 대한 도덕적 의무를 깨달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경을 초월하는 광범위한 세계적 관심을 일관된 교육 과정 안에 녹여내야 한다.<sup>15)</sup> 이처럼 올바른 세계시민으로서의 자각을 증진하고 그 자질을 함양하기 위한 세계시민주의 교육의 중요한 방법으로 마사 누스바움은 ‘서사적 상상력’을 제안한다. 문학작품을 기반으로 형성되는 ‘서사적 상상력’은 도덕적 상호작용의 필수적 준비요소이며, 다른 사람의 결핍에 대해 동감의 반응을 계발하고 다름과 사생활을 존중하면서도 그러한 결핍을 만들게 한 상황을 이해하도록 한다.<sup>16)</sup> 즉 ‘나’와는 너무나 다른 타자의 결핍과 고통에 대해 ‘나’ 또한 언젠가 그 같은 상황에 처할 수 있음을 ‘상상’을 통해 이해함으로써 서로가 동등한 ‘세계 시민’으로서 설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문학과 같

14) 마사 누스바움, 우석영 역, 앞의 책, p.140.

15) 마사 누스바움 외 지음, 오인영 역, 앞의 책, pp.34-39 참조.

16) 마사 누스바움, 황은덕 역, 「민주 시민과 서사적 상상력」, 『오늘의 문예비평』79, 2010, pp.32-33.

은 서사적 텍스트를 통해 공상에서 출발하여 이성에 다다르는 민주주의적 ‘감성교육’을 수행<sup>17)</sup>함으로써 타자에 대한 공감적 통찰력을 배양할 수 있다고 누스바움은 말한다.

이러한 논의들을 기반으로 하여 본고는 ‘서사적 상상력’을 담은 다양한 다문화텍스트를 대학 교양교육 과정에 활용하고자 한다. 이는 다문화의 개념 및 사회 역사적 배경에 대해 교수자가 일방적으로 강의하는 방식이 아니라 자기 감정에 대한 솔직한 자기 기술, 텍스트 분석 및 토론을 통해 학생들의 인식적·감성적 자각과 함께 실천까지도 이끌어내는 과정이 될 것이다. 교양교육의 지향이 인지적 측면뿐만 아니라 감성과 행위의 측면을 통합적으로 교육하는 데 있다고 한다면 이러한 교육과정은 필수적이라고 본다. 이미 대학 교양교육 과정 중에는 실천의 영역을 통합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는 바<sup>18)</sup>, 다문화텍스트를 통해 자기 감정을 성찰적으로 분석하고 다문화주의와 관련된 사회적 실천을 모색하는, 본고에서 제안하는 과정이 또 하나의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3. 다문화텍스트를 활용한 대학 교양수업의 실제<sup>19)</sup>

- 
- 17) 심보선, 「‘시적 정의’에서 ‘시적 정치’로」, 『안과밖』36, 영미문학연구회, 2014, 264-265쪽.
- 18) 대학의 커리큘럼으로 수용되지는 않았지만 다양한 사회인을 대상으로 ‘실천 인문학’ 강의를 시도되었고, 경희대 후마니타스 <시민교육> 교과 또한 시민에 대한 개념, 시민권의 역사 등에 대한 이론 강의와 더불어 학생들의 실천 활동에 더 중점을 두고 있다.
- 19) 3장에서 제시하는 교안은 실제 수업에서 시험 운영한 사례로서 어느 정도의 검증은 거친 것이다.(2명의 교수자가 한 클래스 당 25~40명으로 구성된 5개 클래스에서 한 학기에 걸쳐 시험 운영하였다.) 교안에 제시된 ‘다문화텍스트’ 또한 여러 가지 텍스트 중 학생들과 교감할 수 있었던 텍스트로 선별한 것이다. 그러나 한 학기 동안의 시험 운영 사례라는 점에서 운영 모델을 참고하여 보다 다양한 다른 텍스트로 교체될 수 있다는 점을 밝혀둔다.

1) 자기 감정에 대한 확인 및 성찰

■ 예비 활동

1. 다양성에 대한 학생들의 즉자적인 감정을 확인해보기 위한 예비 작업으로서 다양한 인종/민족의 '얼굴' 사진을 보면서 솔직한 자기 감정을 표현해보도록 한다.
2. '나'가 가장 낯설고 이질적이라고 느낄 수 있는 장면 중 하나는 죽음의 이미지일 것이다. 누군가가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현장, 잔인한 살육의 장면을 담은 사진을 보며 느끼는 자기 감정에 대해 분석하는 글을 쓴다.
3. 자신이 낯설고 이질적인 타자가 되어본 경험은 없었는지, 있다면 자신을 향한 그 시선에 대해 어떠한 감정을 느꼈는지 고백하는 글을 쓴다.

■ '낯설고 이질적인 것'과의 첫 대면

1. 과거의 기억 속에서 '낯설고 이질적인 것'과 마주했던 첫 장면을 떠올려보고, 당시의 상황이나 '나'의 대응방식, 감정들에 대해 써본다.
2. 4~5명으로 구성된 조원들과 글을 돌려 읽으며 서로 비슷한 상황이나 감정이 없었는지 이야기해본다. 공통된 경험이 있다면 그것이 당시의 시대적 배경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닌지 토론해본다.
3. 하종오의 시집 『세계의 시간』(도서출판b, 2013)을 읽고 과거의 기억이 현재의 감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세계 이주 노동자의 삶은 어떠한 배경 속에서 연결되어 있는지 토론한다.

1990년대에 출생한 대부분의 현재 대학생들은 자연스럽게 ‘다문화’를 접하며 성장해온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다문화’ 수용성 지수가 기성 세대에 비해 높고 더 유연한 사고를 지닐 수 있지만, 역으로 ‘다문화’와 관련된 무수한 ‘차이’의 상황들에 둔감하거나 자기 감정의 기원에 대해 더 이상 고민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수이다. ‘글로벌’한 감각은 있으나 그것이 ‘타자’에 대한 이해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비정상회담」(JTBC, 2014. 7. 7~) 등 외국인이 출연하는 미디어 프로그램에 대해 아무런 감정적 장벽 없이 개방적일 수 있듯이, 이주 노동자나 농촌의 이주 여성에 대해서도 ‘외국인’, 혹은 이주민의 일부로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다문화’에 대한 이해는 단순한 ‘다양성’에 대한 수용이 아니라 ‘타자’에 대한 윤리적인 감각에 대한 점검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다양성에 대한 즉자적 감정을 확인하는 <예비활동 1>과 더불어, <예비 활동 2>에 제시한 활동을 통해 타자의 고통을 대하는 자신의 감정을 확인하는 데에서 시작하고자 한다. 아울러 <예비활동 3>을 통해 ‘내’가 타자적 위치에 있었던 경험, 자신을 낮설고 이질적인 타자로 바라보는 시선을 감당해야 했던 경험을 고백함으로써 ‘나’ 또한 언제든지 타자의 자리에 있을 수 있음을 인지하도록 한다. 이러한 활동은 이주민의 자기고백적 글쓰기, 스스로의 자기 분석 과정으로 활용될 수 있다. 대학 내에도 이미 다양한 이주민이 구성원으로서 참여하고 있으므로 이 교안에서 지칭하는 ‘나’는 한국 사회의 정주민, ‘타자’는 이주민이라는 이분법적 등식으로 이해될 필요는 없다.

이어 <‘낮설고 이질적인 것’과의 첫 대면>에 대한 글쓰기 활동을 통해 자신의 감정에 대한 기원을 탐색해볼 수 있다. 또한 조원들과의 토론을 통해 자신의 기억이 당시의 사회 역사적 배경과 관련이 있음을 인식하도록 한다. 이 과정은 각자의 개별 사연에 따라 변수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하종오의 시와 같은 텍스트를 통해 ‘이주’와 관련된 사회적·역사

적 배경에 대해 토론하는 활동과 병행하도록 한다.<sup>20)</sup>

하종오의 『세계의 시간』에는 다양한 국적과 배경을 지닌 이주 노동자들이 때로는 한국에서, 또 때로는 세계 어느 도시의 작업 현장에서 마주하게 되는 ‘시적’ 장면들이 담겨 있다. 표제작 「세계의 시간」에도 베트남인과 필리핀인, 한국인과 북한 사람이 “출신 국가와 근무지와 직종을 생각하지 않고/ 어디서든 맛있게 음식을 먹는/ 모든 각자의 한 시간”에 대해 쓰여 있다. 또 「슬픈 느낌」에는 중국 주민 “팔순 넘은 촌로 쏘부어썬 씨”가 탈북자 처녀를 바라보는 심경이 씩어져 있는데, 거기에는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기억이 개입되어 있다. “전장에서 스쳐 가다가/ 물 한 모금 나누어 마셨을 법한/ 북조선군 병사의 손녀가/ 자신을 찾아온 것 같아서/ 슬픈 쏘부어썬 씨는/ 죽을 나이가 된 그 북조선군 병사가/ 아들 며느리 굶어 죽자/ 자신에게 보살펴달라고 보냈을 것 같은/ 슬픈 느낌이 들기도 했다”라는 시행을 통해, 타자에 대한 감정의 기원에 과거의 역사적 기억이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짐작하게 된다. ‘탈북자’라는 낯선 타자에 대해 어떠한 경험이나 감정적 기억 없이 바라보는 시선과 ‘한국전 참전’이라는 역사적 기억이 개입된 시선은 다를 수 있다. 그것이 타자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으로 작용할 수도 있지만 이 시에서와 같이 공감과 연민의 시선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것이다.

## 2) 통치전략으로서의 다문화주의와 감정의 정치학

20) <‘낯설고 이질적인 것’과의 첫 대면>에서는 2단계에서 서로간의 적절한 경험 이 교류되고 공감되었다면 3단계를 생략하고 마무리할 수 있다. 다만 학생들의 경험이 적절하지 않거나 서로 공유되기에 적합하지 않은 상황일 경우를 대비해 3단계를 제시하였다. 3단계의 텍스트로 다양한 이주 노동자의 삶이 ‘한국전쟁’과 같은 역사적 경험과 연관되어 제시되어 있는 하종오의 시집 『세계의 시간』을 활용하였지만, ‘각주21’에 제시된 다양한 소설 및 영화 텍스트도 이 단계에서 활용될 수 있다.

■ 예비 활동

1. '사끼 바트만'의 영상(「지식채널e」, ebs, 2012. 7. 26)을 본 자신의 느낌을 서술한다.
2. 조원들과 글을 돌려 읽으며 각자의 의견을 나눈다. 전시된 그녀의 신체체를 바라보는 백인 귀족의 시선에 대해, 그러한 시선이 현재에는 남아있지 않은지에 대해 토론한다.

■ 타자에 대한 '나'의 감정과 그 정치적 의미 파악하기

1. 이주노동자, 결혼이민자의 삶이 재현된 텍스트<sup>21)</sup>를 감상하고 느낀 점을 써본다.
2. '다문화' 관련 공익광고를 보고, 그러한 재현 방식을 사용하는 '공익적' 정책의 방향에 대해 토론한다.
3. 2015년 1월 19일자 『동아일보』에 실린 '반다문화' 전면광고를 읽고 '반다문화'를 주장하는 근거에 대해 토론한다. 특히 '혐오'라는 감정이 그 주장을 어떻게 뒷받침하고 있는지에 대해 의견을 나누어본다.

21) 이주노동자 관련 작품으로는 「달개비꽃」(김소진), 「거대한 뿌리」(김중미), 「갈색 눈물방울」(강영숙), 「이무기사냥꾼」(손홍규), 「물한모금」(이혜경), 「나마스떼」(박범신), 「나의 이복형제들」(이명량), 「코끼리」(김재영), 「새끼야 슈퍼」(이시백), 「개 값」(이시백), 「가리봉연가」(공선옥), 「명량한 밤길」(공선옥), 「아홉개의 푸른 쏘나」(김재영), 영화 <웰컴, 삼바>(올리비에르 나카체, 에릭 토레다노) 등이 있다. 결혼 이주민 관련 작품으로는 「나의 이복형제들」(이명량), 「리나」(강영숙), 「가리봉연가」(공선옥), 「잘가라 서커스」(천운영), 「파프리카」(하성란), 「그녀의 나무 핑귀리」(한수영), 영화 <나의 결혼원정기>(황병국) 등이 있다.

학생들과 함께 ‘사끼 바트만’의 영상을 보았을 때, 학생들이 표현한 감정은 대부분 ‘불쌍하다’라는 연민이었다. 아프리카 케이프 식민지에서 태어난 사끼 바트만은 유난히 엉덩이가 크고 음순의 길이가 길다는 신체적인 특징으로 인해 유럽으로 건너가 생애 대부분을 프리쇼(freak show)의 무대, 유흥가의 공연장, 자연사 박물관 등에서 인종전시를 하며 보내야 했고 죽은 뒤에도 과학자들의 연구를 위해 박제가 되어야 했다. 그녀의 신체적인 특징은 단지 코이코이 부족의 유전적 형질이었을 뿐이었지만 이를 신기하고 괴상한 것으로 바라보던 유럽인들의 식민주의적 시선에 의해 그녀는 인간이 아닌 ‘대상’이 되어 전시되고 박제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사끼 바트만의 사례는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너무나 먼 이야기로 받아들여졌고 학생들, 또 우리들의 ‘연민’은 그 거리감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느껴지기도 했다.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해 우리가 개입할 여지는 없으며 게다가 그 일은 우리의 과거가 아니라 오만한 서구의 역사이기 때문에 책임을 느낄 필요도 없다. 같은 인간을 동물처럼 취급했던 서구의 인종주의적·식민주의적 시선을 강도 높게 비판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러한 시선이 지금의 우리에게도 남아있을 수 있다는 자각으로 까지 이어지기는 힘들다. 교수자의 개입은 이러한 지점에서 가능해진다. 일견 무관해 보이는 여러 자료들과 텍스트들을 제시하며 질문을 던지고 연결하여 사고의 폭을 확장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함으로써, ‘연민’이라는 감정에 대해 분석적으로 접근하고 우리와 그들이라는 차별적 배제의 시선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변용되어 왔는지까지 사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사끼 바트만이 살았던 19세기의 제국주의적 인종주의는 다른 인종을 인간의 범주에서 제외함으로써 식민지에 대한 수탈을 정당화하는 정치적 통치술이었다. 이러한 통치술과 현재의 관용적 다문화주의가 어떤 점에서 닮았는지 토론함으로써 통치전략으로서의 다문화주의의 본질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사끼 바트만’의 영상은 예비 활동의 텍스트로서 활용될 수 있다.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다수 생산되기 시작한 다문화텍스트들은 주로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부당하게 차별받고 폄박받았던 이주노동자, 결혼이주민(농촌의 이주여성, 외국인 며느리)의 문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열악한 작업 현장에서 고용주의 갖은 욕설과 폭력에 시달리며 임금 체불을 당해도 법적으로 항의할 수 없는 이주노동자, 코리안 드림을 쫓아 찾아온 땅에서 남편의 부당한 폭력을 견디며 살아가야 하는 이주여성의 사례들을 담은 이러한 텍스트를 보며 느끼는 감정은, ‘사끼 바트만’의 사례에 비해 훨씬 복잡하고 미묘하다. 부당함에 대한 분노나 연민을 느끼기도 하지만 낯설고 이질적인 존재에 대한 거부감이나 ‘우리’의 치부를 드러내는 데 대한 불편함, 죄의식과 같은 다양한 감정들이 있을 수 있다. ‘연민’이라는 감정이 ‘나’에 대한 합리화, 나아가 정치적 무력감과 연결될 수 있듯이, 나의 복잡다단한 감정이 어떠한 정치적 의미를 가지는 것인지 스스로 분석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주 초기에 비해 이주민의 수가 급증하고 있는 최근, 2010년대에 이르러서는 외국인이주민을 더 이상 미미한 ‘소수’로 바라볼 수 없게 되었고 다양한 경제적 사회적 이해관계 속에서 바라보게 되었다. ‘반다문화’와 관련된 여론 또한 그러한 맥락에서 점차 확산되고 있다. 2015년 1월 19일 『동아일보』 등 일부 보수일간지에 실린 전면광고의 제목은 “이자스민·임수경의원과 박원순 서울시장에 의한 「대한민국의 자살」”이다. 이 광고에서는 이자스민 의원이 2014년 12월 18일 발의한 ‘이주아동권리 보장기본법안’을 ‘불법체류자 지원법’이라 칭하면서 ‘우리’가 낸 세금을 불법체류자를 위해 사용할 수는 없다는 맥락으로 끌고 간다. 의무교육을 받는 미등록(불법체류) 이주아동에 한해 한쪽 부모의 한국 체류를 허용하자는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임수경 의원에 대해서도, “미성년 소녀와 결혼을 조장하는 임수경 의원”으로 매도되고 있다. 또 “혈통적으로 순수한 한국인은 사라질 것”이라는 이자스민 의원의 외신 인터뷰 내용을 삽입하여 ‘혈통적 한국인/외국인’이라는 경계를 부각

시키며 ‘감정’을 자극하는 서술방식을 보여준다. 이는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혐오’라는 감정을 통해 제노포비아(외국인혐오증)를 부추기는 방식의 선동적 접근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 대해 분석하고 토론함으로써 ‘혐오’와 같은 개인 감정이 어떻게 집단적 행동으로서 정치화될 수 있는지 생각해 보도록 한다.

앞에서 <비정상 회담>이라는 프로그램의 예를 들었듯이, 최근 미디어에 재현된 ‘외국인’ 표상이 점차 다양해짐에 따라 ‘이주민-타자’에 대해 느끼는 감정을 연민이나 혐오만으로 설명하기는 힘들다. ‘낯섦’이 불안이나 공포와 같은 불편한 감정을 유발하기보다는 ‘새로움’을 선호하는 자본주의적 메카니즘에 따라 동경과 매혹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타자에 대한 동경과 매혹이라는 감정에도 ‘나’의 욕망이 투사되어 있기 마련이어서 이 또한 ‘나’의 감정에 대한 확인 및 성찰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동경과 매혹이란 시기나 질투의 다른 이름이므로, ‘나’의 결핍을 타자를 통해 충족시키려는 보상적 감정은 아닌지, 자기불안이 투사된 감정은 아닌지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새로운 트렌드로서의 상품적 가치가 사라지거나 ‘나’의 자리를 위협하는 경쟁자로 다가오게 될 경우 타자에 대한 선망은 쉽게 자기폐쇄적 배타성으로 전환될 수 있는 것이다. 앞에서 제시한 ‘반다문화’ 관련 전면광고의 논지 또한 이주민에 대해 ‘나의 자리’를 침범해 들어온 또 다른 경쟁자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며 특히 자국민 중심주의, 혹은 자국민 우선주의를 내세움으로써 ‘우리’/타자라는 위계적 배타성을 드러내고 있다고 분석할 수 있다. 이러한 ‘반다문화’ 관련 담론은 하나의 사회적 의견으로서 법적 제도적 차원에서 논쟁이 될 만한 문제이지만, 타자에 대한 배타적 ‘감정’이 정치적으로 활용되는 한 사례로서 치밀하게 분석되고 비판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sup>22)</sup>

22) 강진구, 「한국사회의 반다문화 담론 고찰: 인터넷 공간을 중심으로」, 『인문과학연구』 Vol.32 No.-,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2, 5~34쪽.

### 3) 세계시민으로서의 보편성, '상상'적 공감과 실천

#### ■ 타자에 대한 '상상'적 공감

1. 손흥규의 소설 『이슬람 정육점』(문학과지성사, 2010)을 읽는다.
2. 조원들과 의논하여 각자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들('나', 하산, 야모스, 안나, 김유정, 대머리 아저씨 등) 중 한 인물을 선택한다.
3. 자신이 선택한 인물이 살아온 과거의 삶과 그와 연관된 현재의 감정에 대해 조원들에게 설명하는 시간을 갖는다.
4. 자신이 선택한 인물(a)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인물(b)은 누구인지 얘기하고 그 인물을 선택한 조원(b)은 a에게 자신(b)의 상황과 감정에 대해 설명한다.
5. 모두를 이해하게 될 때까지 4의 과정을 반복한다.

#### ■ '세계시민'으로서의 실천

1. 주변에서 이주민에 대한 '혐오'나 편견의 시선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를 찾아본다.
2. 그러한 사례를 바꿀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조원들과 토론한다.
3.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시도해본다.
4. 위 활동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세계시민의 의미와 세계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윤리적 태도에 대해 생각해본다.

'다문화'적 현실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은 이기심이나 혐오와 같은 감

---

, 「한국사회의 반다문화 담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다문화콘텐츠연구』 Vol.17 No.-, 중앙대학교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2014, 7~37쪽.  
김휘택, 「반다문화주의, 정체성, 민족」, 『다문화콘텐츠연구』 Vol.15 No.-, 중앙대학교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2013, 305~333쪽.

정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인 정의(正義)만으로 해결되기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마사 누스바움은 ‘서사적 상상력’을 통한 ‘시적 정의(詩的正義)’의 실현을 설파한다. 이는 법이라는 공공 영역에서도 상상력과 공감이라는 정의(情義)의 영역이 도입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세계시민으로서의 윤리가 실현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나’와는 다른 위치에 있는 타자에 대한 공감은 그 위치에 ‘나’를 세울 수 있는 상상력에서 비롯된다. 마사 누스바움이 말하는 서사적 상상력이란 “자기 자신이 다른 이의 입장에 있다면 사태가 어떠할지 생각할 줄 아는 능력, 그 사람의 이야기를 지적으로 읽을 수 있는 능력, 그러한 위치에 처한 이라면 가질지 모르는 감정·소망·욕구를 이해하는 능력”을 의미한다.<sup>23)</sup>

이러한 ‘서사적 상상’의 과정으로서 손흥규의 작품을 통한 <타자에 대한 ‘상상’적 공감>을 시도해본다. 『이슬람 정육점』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다양한 국적과 사연들을 지니고 있는데, 이러한 인물들에게 더 적극적으로 공감하기 위해 조원들에게 그 인물이 살아온 과정과 현재의 상황, 감정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한다. 『이슬람 정육점』의 인물들은 시시때때로 자신을 향한 ‘혐오’의 시선을 느낀다. 고아인 ‘나’는 절대 고아를 믿지 않는 원장들의 손에 길러지며 자신을 “유실물”처럼 여기는 현실에 익숙해져 있다. 인간으로서의 존엄이 지켜지지 않는 현실에서 스스로에 대한 냉소와 자기학대는 일종의 자기방어일 수 있다. ‘나’를 입양한 터키인 하산과, 그와 한 동네에 사는 그리스인 야모스 또한 한국인들의 부당한 ‘혐오’의 시선 속에서 살아간다. 정육점을 하는 하산은 돼지고기를 만진다는 이유로 동족인 이슬람인에게조차 혐오의 시선을 받는다. 이처럼 혐오라는 감정은 ‘나’와 타자가 동등하지 않다는 인식, 나아가 타자를 비인간으로 바라보는 시선에서 비롯된다. 다른 민족은 좀 더 우월한 민족과 열등한 민족으로 서열화되고 같은 민족 내부에서도 고아라는 이유로, 가난하다는 이유로 차별받는다.

23) 마사 누스바움, 우석영 역, 앞의 책, p.163.

하지만 소설의 인물들은 그 차별과 편견을 딛고 타자에 대한 공감과 환대를 통해 스스로의 존엄을 회복한다. 한국전쟁에 참전하여 전쟁의 와중에 인육을 먹었던 경험이 있는 하산은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전쟁 고아를 입양하여 돌봄으로써 속죄하고자 한다. ‘고아’의 얼굴을 한 타자의 절대적인 부름에 대한 응답으로, 하산은 ‘나’에 대해 어떠한 요구도 구속도 없이 ‘나’를 자신의 집으로 받아들인다. 타자에 대한 환대가 어떤 것인지를 체현하여 실천하고 있는 소설의 중심인물로, 이 마을에서 식당을 하는 안나 아주머니가 있다. 자신 또한 폭력의 피해자로서 온 몸에 상처를 안고 살아가지만 마을의 상처입은 자들을 기꺼이 껴안고 먹이며 환대와 치유의 장소를 제공한다. 그곳에서 모든 이들은 “본질적으로 아무런 차이도 없는” 이들이 된다. 저마다의 ‘차이’로 인해 상처와 고통을 안게 되었지만 서로에 대한 공감과 이해 속에서 모두의 ‘차이’는 차별과 배제의 근거가 아닌 자기존엄의 근거가 된다. 이것이 바로 모두가 동등한 ‘세계시민’으로서의 보편성이 함의하는 바일 것이다. “본질적으로 아무런 차이도 없는” 인간으로서의 보편성을 기반으로 저마다의 개별성이 존중받는, 각각의 ‘차이’가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세계가 바로 세계시민교육이 실현하고자 하는 모습이다. 이러한 세계시민으로서의 보편성에 기반한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 <타자에 대한 ‘상상’적 공감>의 4~5과정이 배치되었다.

『이슬람 정육점』의 하산이나 안나는 자신의 고통에 함몰되지 않고 타자의 상처를 어루만지며 모두와 ‘함께’ 살아가고자 한다. 특히 안나의 식당은 고통받는 타자의 얼굴을 향해 무한히 열려있는, 무조건적인 환대의 공간이다. 이곳에서 각자의 언어, 고통으로 얼룩진 기억들은 모두의 것이 되고, 이러한 공동의 동질감은 개별 기억을 아우르는 보편의 서사가 쓰여질 수 있는 기반이 된다. 소설의 인물들이 갖고 있는 상처는 전세계인이 참전했던 한국전쟁에 그 연원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다. 각자의 기억은 단편적인 흔적으로서 산발적으로 흩어져 발화하지만 그것이 모여

있는 『이슬람 정육점』이라는 장편은 모두의 역사적인 상처를 아우르는 공적인 언어가 된다. 본고의 문제의식은 교양교육의 현장 또한 ‘이슬람 정육점’과 같은 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데 있다. 각자의 개별 기억을 서사화할 수 있는 공간, 그러나 그것이 자기폐쇄적 합리화에 그치지 않고 타자의 이야기와 소통할 수 있어야 하고 각자의 서사가 네트워크되어 공적인 언어로 전환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전환의 가장 적극적인 형식이 바로 <‘세계시민’으로서의 실천>일 텐데, 이는 자기감정의 기원을 직시하고 넘어서는 과정이면서 감정의 정치학을 ‘다른’ 방식으로 실험해보는 과정이 된다. 여기에는 학생들의 의지와 아이디어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어서 일정한 모델을 제시하기는 힘들지만,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시민교육> 교과에서 이루어진 활동들이 한 예시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성애 중심적 사고를 전환하기 위해 국립국어원에 ‘사랑’에 대한 정의를 정정할 것을 요구했던 사례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유니버설 디자인을 실현하기 위해 왼손잡이 어린이를 위한 학습 매뉴얼(왼손잡이가 책상에 앉는 법, 글씨 쓰는 법, 가위 절하는 법 등)을 작성했던 사례들이 그것이다.<sup>24)</sup> ‘다문화’와 관련해서도 충분히 이러한 실천 활동들이 시도될 수 있으리라고 본다.

#### 4. 결론

본고는 다양한 다문화텍스트를 활용하여 교양교육의 지향점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았다. 교양교육으로서의 다문화교육은 ‘다양성’에 대한 수용에 그쳐서는 안 되고 타자에 대한 윤리교육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먼저 ‘타자에 대한 자기 감정의 확인 및 성찰’을 진행하고, ‘연민’

24)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HUMANITAS COLLEGE GUIDEBOOK 2014』, pp.54-55.

이나 ‘혐오’와 같은 개인 감정이 사회적 차원에서 어떻게 정치적 의미를 획득하게 되는지를 분석하는 활동들을 진행하도록 하였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서사 텍스트를 활용하여 타자에 대해 ‘상상’적으로 공감하면서 동등한 ‘세계시민’으로서의 윤리를 함양할 수 있는 데에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시도해보았다. 이 과정들은 단계적 순서에 의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글쓰기>나 <독서 토론>, <작품 읽기>, <시민교육> 등 다양한 교양교육 과정에 유동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본고에서 제시한 활용 방안은 개인 감정의 사회적 의미, 감정의 정치학 및 실천의 영역을 포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지, 정의, 행위의 측면을 아우르는 융합적 교양교육의 모델이 될 수 있으며, 세계시민으로서의 윤리적 태도에 대한 교육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다문화교육 및 교양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고 본다.

국경을 넘는 이주가 일반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시민’으로서의 윤리적 태도를 함양하는 교양교육의 필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해지고 있다. 본고는 대학의 교양교육이 이러한 시대적 사회적 요구를 수행해야 한다고 보면서 다문화텍스트를 활용한 수업 운영 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사 누스바움의 세계시민론이 주장하듯이, 세계시민으로서 다양한 문화적 전통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이에 대해 보다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타자의 자리에 나를 세울 수 있는 타자적 상상력이 필요하다. 본고의 수업 운영 방안은 타자를 대하는 자기 감정에 대한 성찰적 분석과 더불어 서사적 텍스트를 활용하여 타자의 자리를 상상해보는 활동을 포함함으로써 ‘다양성’에 대한 표층적인 이해에 머물지 않는 세계시민교육으로서의 가능성을 타진해보았다. 이를 실제 수업에 적용한 사례 및 교안으로서의 효용성에 대한 검토는 다음 과제로 남겨둔다.

## 참고문헌

### <자료>

- 손홍규, 『이슬람 정육점』, 문학과지성사, 2010.  
하종오, 『세계의 시간』, 도서출판b, 2013.

### <영상 자료>

- 다문화 관련 공익광고, 「더 큰 대한민국을 노래합니다」 등  
「대한민국의 자살」, 『동아일보』, 2015. 1. 19.('반다문화' 전면광고)  
「이상한 쇼(freak show)」 『지식채널e』, EBS, 2012. 7. 26.

### <단행본>

-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HUMANITAS COLLEGE  
GUIDEBOOK 2014』  
Giorgio Agamben, 박진우 역, 『호모 사케르』, 새물결, 2008.  
Martha Nussbaum, 우석영 역, 『공부를 넘어 교육으로』, 궁리, 2011.  
Martha Nussbaum 외 지음, 오인영 역, 『나라를 사랑한다는 것-애국주  
의와 세계시민주의의 한계 논쟁』, 삼인, 2003.  
Susan Sontag, 이재원 역, 『타인의 고통』, 이후, 2004.  
Wendy Brown, 이승철 역, 『관용: 다문화제국의 새로운 통치전략』, 갈무  
리, 2010.

### <논문>

- 강진구, 「한국사회의 반다문화 담론 고찰: 인터넷 공간을 중심으로」, 『인  
문과학연구』 Vol.32 No.-,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2, 5

-34쪽.

\_\_\_\_\_, 「한국사회의 반다문화 담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다문화콘텐츠연구』Vol.17 No.-, 중앙대학교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2014, 7-37쪽.

김대균, 「다문화사회에서 소수자 배려윤리」, 『윤리교육연구』Vol.24 No.-, 한국윤리교육학회, 2011, 185-198쪽.

김병곤, 「유럽연합(EU)의 다문화교육의 철학적 기반과 함의」, 『다문화사회연구』Vol.4 No.1, 숙명여자대학교 다문화통합연구소, 2011, 35-53쪽.

김정희, 「사회통합을 위한 다문화교육 실천에 대한 논의: 독일 바이에른 주의 학교, 박물관, 사회적 기업 교육 사례 중심으로」, 『문화예술교육연구』Vol.8 No.4, 한국문화교육학회, 2013, 71-86쪽.

김홍운, 「다문화적 시민성 함양을 위한 다문화 교육 방안」, 『다문화교육연구』Vol.1 No.1, 한국다문화교육학회, 2008, 59-80쪽.

김휘택, 「반다문화주의, 정체성, 민족」, 『다문화콘텐츠연구』Vol.15 No.-, 중앙대학교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2013, 305-333쪽.

류방란, 「다문화교육 정책과 교육 현실의 성찰」, 『한국다문화교육학회』Vol.6 No.4, 한국다문화교육학회, 2013, 131-149쪽.

박은중, 「세계화·정보화 시대의 바람직한 민주 시민 교육 방향 모색」, 『교육연구』Vol.21 No.-, 공주대학교 교육연구소, 2007, 39-71쪽.

박휴용, 「다문화사회를 위한 인격교육의 성격과 방향」, 『인격교육』Vol.7 No.2, 한국인격교육학회, 2013, 45-67쪽.

서범석, 「다문화교육정책의 현황과 발전방향 탐색」,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설규주, 「세계시민사회의 대두와 다문화주의적 시민교육의 방향」, 『사회과교육』Vol.43 No.4, 한국사회과교육연구학회, 2004, 31-54쪽.

심보선, 「‘시적 정의’에서 ‘시적 정치’로」, 『안과밖』36, 영미문학연구회,

- 2014, 261-268쪽.
- 윤여탁, 「다문화교육에서 문학교육의 지향과 다문화 교사 교육」, 『다문화사회연구』Vol.6 No.1, 숙명여자대학교 다문화통합연구소, 2013, 59-79쪽.
- 이민경, 「다문화 사회에서의 시민성 교육」, 『교육문제연구』Vol.47 No.-, 고려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2013, 115-136쪽.
- 임민정, 비판적 반성 중심의 다문화 교사교육을 통한 유아교사의 관점 변화, 『어린이문학교육연구』15권3호, 한국어린이문학교육학회, 2014, 273-296쪽.
- 임옥희, 「서사적 상상력: 인문학적 페미니즘의 가능성」, 『탈경계인문학』 13,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인문과학원, 2012, 5-29쪽.
- 정용교, 「다문화 시민교육의 실태와 실천적 적용탐색」, 『한국교육논단』 Vol.10 No.3, 한국교육포럼, 2011, 87-111쪽.
- 조기제, 「다문화사회에서의 민주시민교육」, 『한국민주시민교육학회보』 Vol.7 No.-, 한국민주시민교육학회, 2002, 95-108쪽.
- 허영식, 「다문화·세계화시대를 위한 세계시민주의의 담론과 함의」, 『한독사회과학논총』Vol.22 No.3, 한독사회과학회, 2012, 57-86쪽.
- 황정미, 「다문화시민 없는 다문화교육」, 『담론201』Vol.13 No.2, 한국사회역사학회, 2010, 93-123쪽.
- Martha Nussbaum, 황은덕 역, 「민주 시민과 서사적 상상력」, 『오늘의 문예비평』79, 2010, pp.22-46.

<Abstract>

## A method for utilizing Multi-cultural texts in General education

Cha, Seong-yeon · Yoon, Song-ah

This paper is intended to point out that the multi-cultural education up to now has internalized the hierarchical recognition of others and to propose the need that such a problem of recognition should be more cautiously dealt with in multi-cultural education. Supposing that the purpose of the multi-cultural education is to form a community where lots of different people ultimately understand and respect each other and all of us live together, it is essential to raise criticism on various educational programs and policies which internalized the trend of regarding others as a lower class, secretly recognizing self as the majority.

Especially, this paper aims to point out that this problem not only needs to be dealt with in details in General education in a university, but also becomes a method for searching a direction at the point of time of being under in-depth discussion about the direction of General education. Accordingly, this paper looked into a method able to put the intention point of General education into practice by utilizing a variety of multi-cultural text. This paper, first of all, dealt with 'confirmation and reflection of self emotion to others' in that multi-cultural education as General education should not accept only 'diversity', but become ethical education for others, and did activities

of analyzing how individual emotion such as ‘sympathy’ or ‘hatred’ gets to obtain a political meaning from social standpoints. In addition to that, this paper made attempt so that we, sympathizing with others through imagination with regard to others utilizing narrative text, can go forward to the extent to which we can build up ethics as equal ‘global citizen’. These processes do not proceed by order by stages but can be fluidly utilized in various courses of General education including <writing> or <reading discussion>, <reading literary works>, <citizen education>, etc.

The use method proposed in this paper can become a model amalgamative General education covering aspects of recognition, justice and acts in that it includes social meanings of individual emotion and politics and practice of emotion, and also can become a good example of proposing the directivity of multi-cultural and General education in that it aims for an education toward an ethical attitude as global citizen.

Key Words : General education, Multi-cultural texts, self reflection,  
The politics of emotion, global citizen, narrative  
imagination

■ 논문접수 : 2015년 6월 30일

■ 심사완료 : 2015년 8월 10일

■ 게재 확정 : 2015년 8월 20일